

이지상의 '여행과 삶'



여행에서 중국의 물결

중국의 물결은 경제·정치·군사 등 다 방면에서 우리가 실감하는 바다. 여행에서도 그렇다. 유럽·일본·동남아는 물론 전 세계를 중국 여행자들이 휩쓸고 있다. 이번 연초에 태국을 여행하면서 더욱 실감했다. 태국 전체는 말할 것도 없지만 특히 치앙마이는 더욱 그랬다. 치앙마이는 북부에 있는 태국 제2의 도시로서 방콕과는 다른 유적지와 문화를 갖고 있으며 고산족을 방문하는 트레킹이 유명하다. 이번에 그곳을 가보니 동양 여행자 대부분이 중국인이었다.

태국 현지인들은 그런 상황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있었다. 속소의 주인은 처음에 우리를 중국인으로 알고 씩씩하게 대했다. 벽과 방에는 온통 중국어 경고판이 붙어 있었는데 '담배를 피우지 말라' '음식을 방에서 먹지 말라' '밤에 떠들지 말라' 등이었다. 카페의 여종업원들도 어딘지 우리를 깔보는 것 같았다. 나중에 한국인 것을 알고서 표정이 풀리기는 했지만 예전 같지 않은 모습에 나는 당황했었다.

그들은 모든 동양 사람을 중국인으로 보고 짜증을 냈던 것이다. 중국 여행자들이

들이 치앙마이 대학에서 수업 중인 강의 실 문을 열고 들어다보며 사진을 찍는다든지, 공항에서 속옷을 빨아 대합실에 널어놓는 행동이 신문 기사로 날 정도였는데,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자부심이 높은 태국 사람들이 얼마나 불쾌했겠는가?

그런 상황이다 보니 아내와 함께 했던 이번 여행에서 우리는 더욱 흠 잡지 않는 기 위해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다. 오키나와에도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오고 있었다. 가족 여행자들이 많았는데 할머니·할아버지부터 아이들까지 함께 오니 아무래도 모든 게 서투고 적응에 문제가 있어 보였지만 일본은 매우 세심하게 그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중국어로 된 수 많은 안내판을 붙여 놓았었다.

그런데 모든 중국 여행자들이 현지인들을 피곤하게 할까? 그건 아닌 것 같다. 나는 중국 여행을 하며 혹은 다른 나라에서 수많은 중국인들을 접해 보았는데 지성적이고 예의바르며 순수한 중국인들도 많이 만났었다. 하지만 워낙 해외로 나오는 중국인들이 많다 보니 그들 중에 10%만 문제를 일으켜도 엄청나게 많아

보인다.

1천 명 중에 1백 명이 문제를 일으키면 소수가 그러는 것 같지만, 10만 명이 방문해서 1만 명이 문제를 일으키면 전부다 그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또 아직은 국제적인 매너, 에티켓을 접해 보지 않은 중국 여행자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중국 정부도 해외에 나가서 문제 일으키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이것이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1980년대 후반, 여행 초창기부터 해외 여행을 해온 나는 과거의 한국을 돌아보니 아무래도 모든 게 서투고 적응에 문제가 되게 변했지만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었다. 호텔 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김치 냄새를 베게 하고 오징어에 소주를 마시며 밤새 떠들어서 한국인 금지 게스트 하우스도 유럽에서 생겼었다. 동남아처럼 물가 싼 나라에서 으스스대고, 퇴폐향락 관광 일삼는 모습도 흔하게 볼 수 있었고 지금도 종종 그런 사건들이 보도가 되고 있다.

그럼 이것이 중국과 한국만의 문제일까? 나는 서양인들이나 일본인들 중에

서도 개념 없거나 예의 없는 여행자들이 종종 보였었다. 예의 바른 사람들도 많았지만 집단으로 어울리며 시끄럽게 떠들고 안하무인이어서 현지인들을 피곤하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또 그들은 과거에 다른 문화를 깔보고 착취한 역사도 갖고 있으며, 추한 행동을 많이 해서 '추악한 미국인', '추악한 일본인' 소리도 들었었다. 다만 오랜 세월 속에서 경향이 축적되고 비판받고 세련되어지는 가운데 그런 이들의 비중이 많이 낮아졌을 뿐이다.

세계화 시대에 다른 문화권과 충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당연하게 보인다. 또 외국 관광객들의 쇼핑은 현지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서 현지인들의 고민이 생기는데, 현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외국 여행자들의 노력과 함께 현지인들 역시 외국 여행자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큰 물결을 피할 수는 없으며 여기에 적응해서 살아야 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여행자가>

社說

막 오른 총선...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

오늘부터 제20대 4·13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몸을 풀어 왔던 출마자들은 31일부터는 직접 유세 등을 통해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선거운동은 투표 전날인 오는 12일 자정까지 13일 동안 이어진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원은 자동차에 스피커, 휴대용 확성장치를 부착하고 공개 장소에서 연설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 단계에서는 명함 배포나 인사 등이 주된 방법이였다. 하지만 이제부터 거리에 벽보가 나붙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후보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짐으로써 선거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는 자신을 알리는 어깨띠와 본인만의 독특한 홍보물을 몸에 지닐 수 있다. 배우자와 선관위에 등록된 선거사무장 및 사무원, 회계책임자도 마찬가지다.

일반 유권자들도 공개된 곳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전화·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허용된다.

또 지지 후보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거나 인터넷·SNS·문자메시지, 직접 전화로도 도울 수 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선거사무 관계자 말고는 수당·실비를 받을 수 없고 표창 등은 금지된다. 후보와 관련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특정 지역이나 사람을 비하·모욕하면 처벌된다.

공천을 받았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후보자 입장에서 국회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에 들이선 셈이다. 그동안 준비해 온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선전하기 바란다.

그러나 당선도 중요하지만 선량으로서 갖춰야 할 첫 번째 조건은 선거법을 철저히 지키고, 마지막까지 공정하게 선거운동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일단 이기고 보자는 생각으로 흑색선전, 금품선거, SNS·인터넷을 통한 유언비어 살포 등이 앞으로 더욱 만연할 가능성이 큰 만큼 사소한 불법, 미미한 선거사범이라도 즉시 단속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수은 중독 1년 피해자 보상 약속 지켜야

남양전구 광주공장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의 집단 수은 중독 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난해 이맘때였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가 산업재해(산재) 승인을 받았지만 피해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데다 남양전구가 약속한 치료비 지급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앞선 대법원 격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수는 제거 작업 역시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이렇다간 또다시 집단 수은 중독의 악몽이 되살아날까 걱정스럽다.

지난해 3월 남양전구 광주공장 생산 설비 철거 작업에 투입된 노동자 수십여 명이 집단으로 급성 수은 중독에 걸리자 당시 광주 고용노동청은 근로자 47명에게 임시 건강진단 명령을 내렸고, 영산강환경청 등의 권유로 150여 명도 추가로 건강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임시 건강진단을 받은 47명 중 증상이 있는 데도 '수은 중독'으로 판정을

받은 사람은 14명에 불과했다.

또 14명 중 2명은 진단 결과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에 산재를 신청했지만 승인받지 못했다. 사업자로 분류돼 산재 승인 요건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피해자들은 남양전구 측에 지난 2월 2차 치료비 430여 만 원을 청구했지만 한 달째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수은은 인체에 축적될 경우 치명적인 장애를 일으키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맹독성이 강한 중금속이다. 때문에 수은을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못지않게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및 사후 대책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남양전구와 근로복지공단은 1년 전 지급하기로 했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약속을 하루빨리 지켜야 한다. 관계 당국이나 기업들도 차체에 산재 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종대 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의료칼럼

'3D 메디컬 프린팅' 활용과 전망



박 상 하
광주 새우리병원 정형외과 원장

변에 가깝게 다가와 있다.

2000년을 전후해 '3D 프린팅'기술은 생체 친화성 또는 생분해성 고분자를 이용한 프린팅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3D 프린팅 공학분야의 활용이 활발히 연구되기 시작했다.

네덜란드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몇달 먼저 두개골 이식을 성공했으며, 미국은 나노입자 합금으로 만들어진 유도 코일을 내장한 달팽이관을 통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생체 공학 귀를 만들어 이식에 성공했다.

또 캐나다는 모낭과 땀샘을 가진 피부를 프린팅해 환자에 거부반응 없이 기능 유지에 성공했다.

국내에서는 치과 '크라운'과 '브릿지'제작에 이미 3D 프린터를 상용하고 있으며, 두개골 재건술이나 기도 재건술에 3D 메디컬 프린팅 기술을 사용해 환자를 치료한 사례가 보고됐다. 또한 외과 분야에서 는 모의 수술을 통해 수술의 성공률을 높 이는데 3D 메디컬 프린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정형외과 인공관절 치

환술은 퇴행성 및 다른 이유로 관절이 변형돼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는 환자에게 시행하는 수술로 비정상적인 골 조직 및 연부조직을 제거하고, 해부학적으로 본래 기능에 맞게 관절 임플란트를 삽입하는 고도의 기술이 요구된다.

만약 임플란트 크기 및 삽입 위치 선정이 잘못되면 환자는 지속적으로 통증 및 불편감을 호소한다. 이러한 수술에 '3D 메디컬 프린팅' 기술을 사용하면 더 기능적인 관절을 만들 수 있다. 수술 전 전산화 단층 촬영(CT)을 통해 얻어진 환자의 데이터틀 가공, 실제 크기와 같은 비율로 3D 프린팅을 하고 모의수술을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비정상적으로 자란 골을 확인하고 골 절제 위치 및 범위를 미리 정해 수술을 할 수 있어 수술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지 못한 문제를 미리 발견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합병증 발생 확률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또한 프린팅된 골 모형을 이용해 환자에게 수술방법을 효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불안해하는 환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효과도 있어 환자와 의료진의 관계 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이처럼 3D 메디컬 프린팅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점차 뼈를 비롯한 장기와 비슷한 물성을 지닌 생체 적합성 재료가 만들어 지면 그 적용증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3D 메디컬 프린팅'은 전세계의 관심 속에 기존의 미국, 유럽 주도의 시장에서 중국이 가세해 무한경쟁의 시대에 돌입한 상황으로, 국내에서는 아직 해외에 비하면 관련 정책이나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다. 하지만 국가 전략사업으로 지원이 늘어나고 있고, 최근 의료계가 활발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이에 관련한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다.

3D 프린팅은 환자에게는 양질의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의사들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정확한 진료 및 기술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기 고

백세시대 행복한 노년으로 살아가려면



나 대 응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본부장

가해 다시 발표했다. 이 사실은 그녀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밝힌바 있다. 이렇듯 불과 20년 전만 해도 환갑(還甲) 또는 회갑(回甲)이라 하여 잔치를 크게 치르곤 했으나, 이젠 고희연(古稀)조차 코웃음 짓는 시대가 되었다.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홍보대사 이순재 씨도 "앞으로 우리나라 노인 정년 시한이 60세는 청년, 70세는 장년, 80세는 노인이라는 인식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건강한 정신과 마음으로 자기관리를 통해 사회변화에 당당하게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야 한다"며 시니어들에게 파이팅을 외치기도 했다.

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노년은 본인은 물론 가족, 더 나아가 사회적 고통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 중 일부는 평균 10년간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과 암 등을 앓다가 죽어간다고 한다. '구식구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삼 일 아프다 편안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바람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생활습관과 질병예방 및 관리에 대한 스스로 역할과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됐다.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인구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14.3%)를 넘어 2026년 초고령 사회(20.8%)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인인구 비율은 12.70%로 광주는 10.83%다. 전남은 20.14%를 차지해 이미 광주는 고령화사회, 전남은 초고령사회가 되었다. 고령, 곡성, 구례 등 일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30%대가 넘는 지자체도 있지만, 도내 전체 평균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선 건 처음이다. 2020년에는 광주·전남 노인인구비율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는 노인 여가활동 및 노인사회활동을 중심으로 서틀버스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건강체육, 취미 여가, 교양 교육, 정보화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다채로운 공연과 행사 등으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백세시대, 백세인생'을 그려내고 있다. 2015년 재단 소식지(24

호)에 '90세 왕언니 김영필 할머니'를 소개한 바 있다. 김영필 할머니는 2009년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개원부터 '스위시'(컴퓨터 애니메이션 응용프로그램)를 수년째 배우고 있다. 그는 '소식하는 습관'과 '공정적인 마음가짐'을 장수의 비결로 내세우며 행복한 노년을 즐기고 있다.

더욱이 타운에서는 회원들이 소장하고 있는 일제시대, 해방 후, 6·25 한국전쟁 등 시대별 사진을 모집·전시해 근현대사의 사회·경제·생활·문화 등 과거와 미래를 재조명할 계획이다. 자칫 방치돼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릴 수 있었던 기록을 모아 근현대사 정보를 공유하고 제공해 역사 알리미 역할을 할 수 있는 '근현대사 사진 모집 및 전시'를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민선6기 시장구호인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 에서와 같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인격적 품위를 지키면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따뜻한 복지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개발과 서비스를 강화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본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無 等 鼓

1952년, 아르헨티나의 스페셜 살 청년 에르네스토와 스페인 출신 알베르토는 남미 여행을 떠난다. 두 사람은 길 위에서 의대생이었던 자신들의 인생을 바꿀 이들을 만난다. 나환자촌 환자들, 마추픽추 등 위대한 문명을 쌓아 올렸지만 이방인 신세가 되어 버린 인디언들, 일지리를 얻기 위해 광산을 찾아 떠나는 가난한 부부 등. 길 위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는 에르네스토는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나와 다르다”고 말한다.

에르네스토는 1969년 10월 7일 볼리비아에서 살해된다. 알베르토는 훗날 쿠바에서 생물학과 교수를 지낸다. 에르네스토는 사르트르가 ‘20세기 가장 완전한 인간’이라고 칭했던 체 게바라다.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속에 불가능한 꿈을 꾸자’라고 했던 혁명가.

월터 살레스 감독의 '모터사이클 다이어리'(2014)는 이들 청년들의 여정을 찬찬히 따라간다. 잔잔한 음악과 함께 카메라가 ‘길’을 따라 움직이며 두 청년을 좇을 때면 가슴이 울렁인다.

두 사람은 ‘낮은 오토바이’에 몸을 싣고 길을 떠난다. ‘모터 사이클 다이어리’를 봤던 이들이라면 모터바이크를

타고 시베리아를 횡단한 탐험가 김현국(‘당신의 탐험’ 대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영화를 떠올리지 않았을까. 김현국은 1996년 러시아와 시베리아를 횡단했다. 1만 4000km에 이르는 대장정이다. 2014년엔 유라시아 대륙 2만 5000km를 달렸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교류협력센터 1층(옛 전남도청 별관)에서는 그의 여정을 담은 ‘유라시아, 그 미래와 의 만남’전이 열리고 있다. 전시장엔

애마 BMW G650- GS가 전시돼 있다. 온갖 사연이 담겨 있는 듯한 육중한 바이크엔 그의 꿈이 함께 보인다. 낮은 옷과 지도 등이 놓인 ‘탐험가의 방’, 세계 각지에서 만난 이들의 모습 등을 담은 사진 자료 등도 흥미롭다.

모터바이크를 타고 유라시아를 달린 김현국은 꿈을 끈다. 국경이라는 경계를 무너뜨리는 21세기 상상력으로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제 진정한 당신의 탐험을 시작하십시오’ 전시장 출구에 쓰인 글귀다. 전시는 오는 4월24일(무료)까지 계속된다.

/김미은 문화1부장 mekim@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FAX 227-9500)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다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